기증작품 400여점…치열했던 예술세계 조명

올해 타계 10주기를 맞은 이강하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이강하 미술관'이 오는 9일 정식 개관한다. 전시작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큐레이터 딸 이 선씨와 미리 둘러본 양림동 '이강하 미술관'

남구청, 동사무소 리모델링…9일 개관
전시실·화가의 방·아카이브 공간 등
7월 31일까지 개관전 '이강하의 길'

"가장 두려운 것은 병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감을 짜고 붓을 쥘 힘이 없어져 가는 것"이라 했던 이강하(1953~2008) 작가의 유작은 300호 대작 '무등산의 봄'이다. 직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5년간의 투병 생활 동안 그는 한 순간도 붓을 놓지 않았고 서석대와 철쭉, 새가 어우러진 화사하고 따스한 봄날의 무등산을 우리에게 남기고 이별했다.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없음을 무엇보다 힘들어했던 그는 이 작품을 그릴 당시 병간호를 하던 아들 이조흠(35) 작가에게 "손이 자꾸 떨리니 손을 묶어달라"고 하며 붓질을 멈추지 않았다.

이강하 작가 10주기를 맞는 올해 영산강과 무등산 등 남도의 풍광과 역사를 화폭에 담아온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강하 미술관'이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문을 연다. 개관(9일)을 앞둔 6일 미술관 큐레이터인 딸 이 선(37)씨와 공간을 둘러봤다. 전남대에서 미술이론을 전공하고 아버지 작품을 주제로 석사 학위를 받은 이 씨는 광주문화재단에 근무하다 3개월 전부터 유작 기증과 정리 등 개관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유족은 작품 400여점과 유품 134점 등 534점을 기증했다.

영암 출신인 이 작가는 단청 그림을 그리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레 전통 오방색과 샤머니즘적 사상을 이어받았고, 이후 독창적인 화풍으로 그림 세계를 구축해 갔다. 서른이 넘어 조선대 미술학과에 입학했던 그는 광주민중항쟁에 시민군으로 참여했다 투옥된 5·18국가 유공자다.

생전의 이강하 작가.

이강하 미술관이 양림동에 문을 연 인연은 1980년에서 출발한다. 지명수배자로 쫓기던 그는 양림동 친척집에 숨어 살았고, 결혼 후 양림동에 30여년 동안 머물며 한국의 전통사상과 정신을 담은 '맥' 시리즈와 무등산 사계·누드가 상징인 '무등산' 연작을 작업했다. 지금도 미술관 명예관장을 맡은 아내 이정덕씨는 양림동에 살고 있다.

광주시 남구청이 개관한 미술관은 옛 양림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 2층 규모로 1층에는 전시실, 2층에는 자료실과 수장고실이 갖춰져 있다. 봄이 되면 미술관 야외에 관람객들이 쉬어가는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이강하 미술관' 외관.

미술관 입구에는 '화가의 방'을 마련했다. 굳어버린 유화물감이 그대로 남아 있는 팔레트와 낡은 붓, 작업하며 듣던 CD, 박경리의 '토지' 등 고인이 즐겨 읽던 책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실 뒷편은 편지, 전시도록, 일기 등을 모은 아카이브 공간으로 활용한다. 2층 자료실에서는 '꼼꼼했던' 생전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기록들을 만났다. 슬라이드 사진을 보관한 작품별 개별 앨범과 낡은 방명록, 아내 이정덕씨가 출근하며 적어둔 점심 반찬 메모까지.

개관전 '이강하의 길'은 오는 7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전시작은 1970년대 작품부터 유작 '무등산의 봄'까지 시대별 대표작으로 구성했다. 특히 대작의 작가로 알려진 그의 소품들은 어떤 전시에서도 보기 힘든 작품들이다. 수수하지만 올곧은 나무, 아이를 업고 가는 엄마의 뒷모습, 짙푸른 색감이 인상적인 산 등이 눈에 띈다. 전시실을 꽉 채운 작품은 13m 대형작품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다. 1995년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로 선정돼 선보였던 그림으로 그의 트레이트마크인 누드와 풍경이 어우러져 압도적이다.

"아버지의 작품에는 대부분 '길'이 등장하는데 그 길이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이자, 자신의 예술세계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거라고 생각해 전시 타이틀로 삼았어요. 이강하의 작품을 통해 예술세계와 사상을 전하고 싶다는 미술관의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하구요."

이씨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뼛속까지 그냥 예술가였고 삶 자체 역시 작업의 연속이었다. 작업실에 들어가면 도통 나올줄 몰랐던 아버지는 전기장판을 깔고 작업하다 화상을 입기도 했고 "감옥 같은 데 가둬두고 물감과 붓만 줘서 그림만 그리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곤 했다.

"작가의 메시지와 작업 정신을 관람객들에게 전해주는 미술관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또 양림동이 문화역사마을이라는 점도 잘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씨는 이곳이 동사무소였다는 점을 감안, 동네 친화적인 '예술 동사무소'를 컨셉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사생대회,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술관이 주민들과 친해지는 것이다.

한편 개관식은 오는 9일 오후 3시 최영호 남구청장, 이정덕 명예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674-8515.

/글·사진=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인협회 김석문 신임 회장 취임

광주시인협회 신임 김석문〈사진〉 회장의 취임식이 최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다목적홀에서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기는 2018~2019년까지 2년.

이에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2월 회원들의 추대로 신임회장에 선임됐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 회장은 "올해 시인협회는 시민들의 정서를 따뜻하게 고양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일상에서 '시의 체감온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백일장 같은 행사를 지양하고 터미널이나 은행, 관공서 같은 곳에 작은 시집을 비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협회 활성화와 회원들간의 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매년 1회 발행해왔던 협회 기관지는 종전대로 연말에 출간을 하고 상반기에는 회원들의 작품을 묶은 시집을 발간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김 회장은 "올해로 협회가 창립된 지 24년째이지만 여전히 활동이 미약하다"며 "올해는 해외 문학기행, 문학 강좌 등을 매개로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는 데도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신임회장은 96년 '문예사조'로 등단했으며 2015년도 예총 특별예술상을 수상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영무 예다음 광주비엔날레 후원금 1억원

지역 건설업체 영무 예다음이 2018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해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재)광주비엔날레와 영무 예다음은 6일 광주비엔날레 3층 회의실에서 (주)영무토건 박헌택 대표이사와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진〉

(주)영무토건 박헌택 대표이사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한 광주비엔날레가 더욱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으로서 후원을 통해 광주비엔날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자 했다"고 후원 취지를 설명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월요콘서트' 공연팀 찾습니다

광주문화재단 20개팀 14일까지 접수

매주 월요일 색다른 주제와 공연으로 색다른 무대를 꾸릴 '월요콘서트' 공연팀을 찾는다.

광주문화재단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빛고을시민문화관 별관)을 활용해 매주 '월요콘서트'를 운영한다. 지난 2011년부터 8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는 '목요상설무대'로 꾸려오다 2017년부터 '월요콘서트'라는 새 이름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올해 '월요콘서트'는 4월부터 11월까지(7월~8월 제외)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공연하며 총20개 공연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공연팀에는 ▲출연료 100만원 ▲공연장 제공 및 부대시설 지원(조명, 음향 장비 등)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전문 예술인 및 예술단체로 60분미만 소공연장 무대에 적합한 공연이면 가능하며 장르는 제한 없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062-670-7943@daum.net)하면 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